

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	2020. 4. 17. / (총 7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홍 승 령 조 영 대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805	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	
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	과 장 담 당 자	박 지 홍 황 현 주	전 화	044-201-3804 044-201-3786	
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	팀 장 담 당 자	이 경 진 김 문 희	전 화	044-202-2023 044-202-2031	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, ▲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 등 -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(국무총리)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▲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▲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지역 사회 발생의 경우를 넘어서고 있다며, 해외유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줄 것을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.
- 또한,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, 정보기술(IT) 기기에 서툰고 수업 집중도가 낮아 더욱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, 온라인 개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1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(일)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되,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(전용칸)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공항철도와 시내버스의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.

-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(1일 평균 117회)로 총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,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(전용칸, 1일 45회)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,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점에서 보건소·자택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.

○ 또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*를 운영하고 있으며, 오늘부터 심야시간대(22시~07시)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(05시~20시)로 조정하여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* ①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분리, ②방역조치 택시(비닐 칸막이 설치 또는 방호복 착용 등)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하도록 제한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“해외입국자 중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평시 대비 약 1.5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,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다른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라고 전하면서,

* 해외입국자 교통수단별 이용현황 (4.1~4.15, 총 71,862명)

: 승용차·택시 60%(43,104명), 전용 공항버스 19.8%(14,265명), 셔틀버스 및 KTX 15.4% (11,051명), 전세버스 3.6%(2,611명), 기타 1.2%(831명) 순

-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 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

※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.

3 생활방역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(2,200명 참여)를 실시하였고,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 과정에서 반영하였다.
- 지난 국민 의견 수렴에 이어,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지난 4월 12일(일)부터 26일(일)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.
 - * 핵심수칙 : ① 아프면 3~4일 집에서 쉬기, ②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, ③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, ④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,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
- 이번 설문조사에는 현재까지 5,135명(4.15일 13시 기준)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,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제도적·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. [붙임 1]
-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.

○ 국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(ncov.mohw.go.kr),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, 보건복지부 공식 SNS(페이스북, 네이버 블로그 등)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
- 아울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 ‘구글 설문 폼(<http://bitly.kr/vAaTwiqv>)’으로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된다.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.

- < 붙임 > 1.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
2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3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
2.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
5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6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7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8. 마스크 착용법
9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10.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

붙임1

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 (4.15일 13시 기준)

주요 궁금증	제안 의견
제 1 수칙) “아프면 3~4일 집에서 쉽니다”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인의 처우(급여, 휴가 등 기준) 실내에서 가족과의 생활 시 지켜야 하는 행동 수칙 (가족과 분리방법, 고령자 주의사항 등) 외출 시 기준(가능 범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/사업주의 제도 개선 재택근무 활성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
제 2 수칙) “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”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중교통 이용 시 기준 공공장소 등 밀폐 공간에서의 대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 공공장소에서의 간격 유지를 위한 테이블 배치, 칸막이 설치
제 3 수칙) “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,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”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을 씻는 구체적인 사용법 (물, 비누, 소독제 등) 주기, 횟수, 종류 소독 제품 성분의 감염 예방 효과, 부작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독제 휴대화(포켓 세정제) 및 공공장소 비치 등 손씻기 환경 조성 손등 인사법 마스크 착용 및 옷소매 기침 예절 생활화
제 4 수칙) “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,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”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기에 대한 기준(횟수, 주기 등) 미세먼지 대처법, 공기청정기 대체 가능 소독에 대한 기본정보(방법, 제품, 성분 등) 공공장소 등 외부공간의 이용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독방역용품, 소독제 등 제반 지원 소독법, 체계적인 소독 관리 등 지속적인 국민 안내 필요성
제 5 수칙) “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”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칙 기준과 범위가 모호 취약계층(홀로 계신 노모, 장애인 등)에 대한 수칙 이행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코로나19 사각지대 (확진환자, 자가격리자, 취약 계층 등)대상 SNS, 비대면 소통 지원, 통화 요금 감면 서로 밀어내지 않고(혐오, 따돌림, 낙인 등), 마음을 좁힐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

붙임2

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붙임3

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